



‘시한폭탄’ 의료대란, 충북대도 의대 교수 사직 확산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과 같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 전망 확충, ▲공정 보상(건강보험이 적용 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전국 의료 현장에서는 이 중에서 의대인력 확충 항목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그 이유는 2,000명에 이르는 의대정원 증원의 숫자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저수가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성형이나 미용 계통의 의사의 수만 대폭 증가만을 불러올 것이라며, 원점 에서부터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필수요료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 인원 부족이 아니라, 일은 힘든데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전국 의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00명 정원 배정안을 확정된 가운데, 지역 거점 국립대 중 하나인 충북대 의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1명을 더 배정 받게되어 정원이 200명이 되었다. 현재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충북대 의대 교수들 대다수가 앞으로 의대 교수를 단시간 내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학생 수 또한 4배로 늘어 수업의 질만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충북대는 정부에 현재 기존 3개 의학관을 합한 넓이의 1.8배인 ‘의대 4호관(3만 2,008㎡)’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완공할 건물 공사비로 1,119억 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가르치려면, 새 의학관에 10인용 실습실 90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과 정부의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정부와 의협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개, 교수연구실 120개와 다른 편의시설들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 달을 훌쩍 넘긴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해 의대 교수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되는 진료로 인한 피로도가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 진료 또한 불가피하게 축소하기로 하며, 전국에서 최초로 금요일에

휴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충북대 의대와 부속 병원의 경우 200여명에 이르는 교수 가운데 최소 60명 이상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이는 전체 인력의 30% 가까이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거점 의료센터인 충북대 병원의 의료 공백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충북 대학교 병원 의대 교수들은 앞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임시적으로만 진료를 계속하되, 향후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경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인터뷰



4월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이미 재외투표가 27일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 115개국에서 4월1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4월4일과 5일 양일간 사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본사는 전국선거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충청권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종갑지역구에

출마한 두명의 후보자와 청주서원구에 출마한 두명의 후보자를 만났다.

공정한 인터뷰를 위해 공동 질문으로 후보자 소개, 출마소감, 선거 공약과 함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인구문제와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에 관한 질문을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관련기사 5면)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개막전,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3월 20일부터 고척돔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을 치렀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3월 20일부터 고척돔에서 개막 2연전을 치렀다. 한국에서 MLB 개막전이 열린 것은 사상 최초인데, 이번 월드 투어는 MLB 사무국이 야구의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각 팀은 3월 15일에 한국에 도착했고, 짧은 시차 적응

해당 두 팀은 MLB에서 최고의 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스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많은 한국 야구 팬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다저스에는 아메리칸 리그 MVP였던 오타니와, 일본 프로야구(NPB)에서 퍼시픽 리그 MVP로 3년 연속 환상적인 경력을 쌓으며 올해 다저스로 이적한

시간을 보냈다. 개막전이 시작되기 전, 양 팀은 3월 17일에 두 번의 친선 경기를 가졌다. 양 팀의 공통된 상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었고, 키움은 다저스와, LG는 파드리스와 경기를 치렀다. 고척 스카이돔은 키움의 홈구장이고, LG는 작년 한국 시리즈의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각각 MLB의 팀들과 경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저스는 키움을 상대로 14:3으로,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5:2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달렸다. 파드리스는 LG를 상대로 5:4로, 대표팀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있었다. 또한 파드리스에는 4명의 아시아 선수가 있었다. 다르빗슈 유, 작년에 골든글러브 유틸리티 부문을 수상한 김하성, 최근 LG 트윈스에서 파드리스로 합류한 고우석,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일본인 선수인 마쓰이 유키가 그들이었다.

다저스 선발투수는 타이러 글래스노우(우완)였으며, 파드리스는 다르빗슈 유(우완)였다. 글래스노우는 "시차 적응을 잘 마친 상태이고, 평소처럼 불펜피칭을 했다"고 밝혔고, 다르빗슈는 "지금 컨디션이 좋다.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번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 야구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았다. 한국 치어리더들은 경기에 열정을 더했고, 개막전 1라운드는 에스과의 축하무대로, 시리즈 2라운드는 (G)-아이들 무대로 꾸며져서 다채로움을 더했다. 다양한 행사와 열정적인 선수들이 만드는 두 경기는 쿠팡플레이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국에서 열린 첫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개막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윤겸 기자

세종국제고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다!



지난 3월 18일, 국제 전문 인재 양성 목적의 중부 지역 유일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세종국제고등학교(교장 박희동, 이하 세종국제고)에서는, 지리학자인 경인교대 김이재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세계 지역 연구가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종국제고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GSU) 및 호주 캔버라 그램머 스쿨(Canberra Grammar School, CGS), 일본 나라 현립 국제고등학교, 대만 문화고등학교 등과 수업 및 문화,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교수와 학생들 간의 대화는 '세계 지역 연구

학술 교류 프로그램' 형식으로, '한국을 알아 세계에 알리고(Korean Identity), 세계를 알아 한국에 알리는(Global Research)'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김이재 교수와 함께 지리학을 기본 지식으로 연구한 '지역 연구자(Regional Researcher)'가 되어 국가, 지역 연구 및 글로벌 이슈를 탐구하고, 이 탐구 내용들을 세계 120여 개 국가 청소년들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하면서 민간인 학생 외교관 역할을 펼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커넥트그래피 혁명의 시대, 글로벌 인재가 되는 법'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외국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가 해외로 진출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국제고 원오한 지리 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지리학적 지역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탐구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3학년 공태균 학생은 "해외 친구들과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연구를 통해 한 국가를 깊게 연구하고 이해하며,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설렌다"고 말했다.

박희동 교장은 "세종국제고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산실로 더욱 발전하기를 고대하며,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학교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국제고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2월 말까지 세계 120여 개 국가의 학생들과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며, 지역 연구 및 글로벌 이슈 탐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인호

2024 서울 커피 엑스포에 르완다 커피 선보여

2024 서울 커피 엑스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커피'를 주제로 지난 3월 21일 삼성동 코엑스 A, B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커피 엑스포는 24일까지 계속되었는데, 많은 커피 관련 회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커피 관련 제품과 산업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 올해의 초청국가로 르완다가 선정되었다. 르완다 부스에서는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품질이 우수한 커피를 방문객이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대화하기도 하였다. 르완다에서 커피는 19세기 후반 독일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지만, 대규모 커피 재배는 20세기 초 벨기에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어 고품질의 아라비카 커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르완다 커피 산업은 1994년 르완다 내전 등으로 인한 대량학살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 시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르완다는 커피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르완다 커피는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특별한 커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오늘날 르완다 커피는 적당한 품질뿐만 아니라 과일과 꽃 향기 등 독특한 맛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2024 서울 커피 엑스포는 코엑스와 한국커피협회가 공동 주관했는데, 올 상반기에 한국에 열린 커피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앞으로 서울 커피 엑스포가 세계적인 커피 열풍을 주도하는 허브로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롱코 모이세 (특별기자)

특별대담

이광희 (청주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를 지칭하는 말은 서원전문가입니다. 서원구에서 40여 년을 살며 대학을 졸업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서원구에서 시민운동가로, 도의원으로 서원구 곳곳을 누볐습니다. 시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을 직접 보기 위해 도의원 8년 동안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서원구를 누구보다 잘 가꿀 수 있습니다.

Q.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퇴행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묵도하며 인내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했고, 여당은 왜곡을 넘어 허위 사실로 인신 모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생과 민주를 지키기 위해, 서원구를 정치검사, 비리검사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Q. 후보님의 주요 공약을 말씀해주세요.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수사받지 않는 특권, 책임지지 않는 특권, 가장 큰 검사 카르텔의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내려놓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하겠습니다. 수사받지 않는 특권을 해체하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해체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청주의 새로운 발전축인 서원구를 만들겠습니다.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육특구-서원'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도면의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국가정원'으로 가꾸겠습니다. 대전과 세종과 청주 도심의 지리적 교차지점인 현도면에 국내 최초 '탄소중립 사업연계 연구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직, 수곡, 모충동 재개발을 지원하고, 분평2지구 및 신규 택지 지역에 나무숲과 건물숲이 조화를 이룬 정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서원행정타운을 남이면에 조성하여 기존 구도심에 산재해 있던 행정기관을 집중시켜 서원구민께 보다 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모 (청주 서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률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국정 운영과 법률제정, 개정과 관련된 경험을 충분히 쌓았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정치 모두 다 법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제가 지역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고,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규모 조직 관리에서도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운영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습니다.

관리자로서 또 사람과 사람을 엄무적으로 엮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단합된 힘을 끌어내는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Q.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서원구는 민주당이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치를 주도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권은 침체되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 서원구 주민들은 '정치가 실종되었다', '국회의원이 서원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왜 세비를 받아가지지 모르겠다' 등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서원구의 미래 100년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Q. 후보님의 주요 공약을 말씀해주세요.

청주 도심철도 서원선 신설, 교도소와 체육관 이전으로 도심개발공간 창조, 재개발 및 도시재생 신속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서원구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 활성화, 청년·여성·노인의 활력있는 삶 지원 등 명품 서원구를 만들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인터뷰

Q. 초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어야 사람이 찾아오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화석빛 콘크리트 아파트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이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원도시 서원'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특구 서원'은 청년이 어른의 지혜를 배우고, 아이의 창의성을 배우는 교류의 공간입니다. 대학이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서원형 보건소를 건립하여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노인복지시설 예산을 복원하여 서원구 내에 노인복지 시설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과 교육 여건을 공공의 영역에서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Q.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우선 민생 안정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민생 정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새로운 민생 정책을 시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야당 주도의 입법에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형령으로 정치를 하는 무도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청주 서원구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청주시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나, 국립 측에서 주장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고, 주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개발을 진행해야 수익이 남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로 민간의 투자는 요원합니다.

분평2지구, 장성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계획 지역의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교도소 이전 비용의 일부를 마련하고, 청주테크노폴리스 사례처럼 민간공동개발을 통해 청주시 이익금을 확보하여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족한 비용은 국비 지원을 받아 청주시 재정, 즉 청주시민의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경한 기자

Q. 초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인구 정책은 산발적이고, 여러 부처별로 이루어져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정부 부처의 설치가 필요하고, 인구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인구부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인구정책의 통합과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 완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등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사회를 구축하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와 사회 참여 확대'로 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인구 구조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고령화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Q.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우선 민생 안정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세감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한도 확대 등 실질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서원구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난 20년 서원구의 최대 현안은 교도소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국비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코자 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국유재산에 대한 국비와 민간의 복합투자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경험,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교도소 이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노정은 기자

청주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청주시 청소년수련관(관장: 강경구)

에서는 지난 3월 23일 유광욱 청주시의회 의원과 함께 청주시 청소년활동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조례 제 정 관련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시



청주시청소년수련관 강경구 관장님 및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 청주시 청소년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활동의 지원 등이다.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과 활동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경구 관장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운영 위원으로서 청소년수련관 활동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바램을 충실히 반영하고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주시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철



‘오펜하이머’ 96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 7개 부문 수상



영화 ‘오펜하이머’가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지난 3월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Dolby theater)에서 개최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오펜하이머’는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AMPAS)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의 영화상이다. 평단의 호평과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 오펜하이머의 수상 예측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은 발생하지 않았다.

작품상 수상자는 영화 ‘대부’로 알려진 알파치노였다. 알파치노는 시상대에서 “마지막 상 시상자로 나오게 돼 영광이다. 10개 명작이 후보에 올랐고, 작품상을 손에 넣게 될 작품은 하나이다, 봉투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한 뒤 ‘

오펜하이머’를 호명했다.

알파치노가 작품상 수상자를 호명되자 ‘오펜하이머’의 감독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과 배우 킬리언 머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에밀리 블런트 등은 무대 위에 함께 올랐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아내이자 공동 제작자인 엠마 토마스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라고 벽찬 감동을 전했다. 또한 "이 영화가 이렇게 탄생한 것은 놀란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고 전제적인 감독님께 감사하다. 우리 팀의 가장 멋진 부분은 팀 워크였다.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생애 첫 아카데미상 수상을 ‘오펜하이머’를 통해 이뤄낼 수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실존 인물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핵 개발 프로젝트를 담은 영화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미술상, 편집상 등 1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크리스토퍼 놀란), 남우주연상(킬리언 머피), 남우조연상(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편집상(제니퍼 레임), 촬영상(호이터 반호이테마), 음악상(리드비히 고렌스) 등 총7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현경 기자

내슈빌 한인회 한인의날 선포 축하행사



지난 3월 2일 오후 3시에 내슈빌의 터스컬럼 침례교회 (Tusculum Hills Baptist Church)에서 3.1절 기념 내슈빌 ‘한인의 날’ 선포 축하식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지난 2월 6일, 내슈빌 시청에서 ‘한인의 날’과 ‘구정’을 동시에 공표한 선언서를 받아온 후, 내슈빌 한인회 측에서 3.1절을 기념하며, ‘한인의 날’ 선포 축하 잔치의 일환으로 열였다.

식전 행사로 지역 한인 교회 고전무용단의 공연과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한 신회경 내슈빌 한인회장의 특강이 있었다. 페시 프리스트 (Percy Priest)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 학생과 교사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 프레디 오코넬 (Freddie O’Connell) 내슈빌 시장이 직접 참여하여 내슈빌 ‘한인의 날’을 선포하였으며, 시장의 서명이 적힌 선포문을 주민을 대표하여 신회경 한인회장이 전달받았다. 이어, 앤지 헨더슨 (Angie Henderson) 부시장이 앞으로 ‘구정’을 중국 설(Chinese New Year)이 아닌, 음력 설 (Lunar New Year)로 공식 사용한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문화의 기원까지 설명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테리 보 (Terry Vo) 시의원이 중역 시의원 15명이 친필 서명을 통해 내슈빌 한인회의 지고한 헌신을 치하한 ‘내슈빌 한인의 날’을 낭독하고, 시의원실에서 친히 액자로 표구해 온 증서를 증정하기도 하였다.

신회경회장은 환영사에서, 외국의 침략과 압제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위대한 민족의 나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인재와 사업체가 들어와 미국 현지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이 도와야 하며, 한인회 또한 시 정부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설움과 고난을 극복한 한국과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게 하고, 제2의 고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내슈빌 시 정부의 융화적 리더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문영 국제부기자



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2023 유럽 도시의 삶의 질’ 제목의 보고서에서 스위스 취리히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2023 유럽 도시의 삶의 질’ 제목의 보고서에서 스위스 취리히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4월 EU 회원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 (EFTA), 영국, 서부 발칸, 튀르키예 등에 있는 총 83개 도시 거주자 7만11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취리히 거주자들은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의료 서비스, 대기의 질 등 각 항목에 80~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소수자와 고령층이 살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도 각각 96%,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비싼 집값은 단점으로 꼽혔다. ‘합리적 가격으로 좋은 주택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항목에서 ‘그렇다’고 답한 취리히 거주자는 1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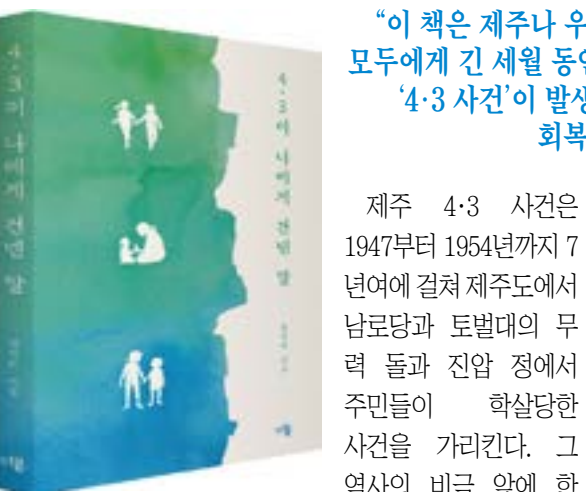
유럽생활 만족률 2위 도시는 덴마크 코펜하겐과 네덜란드 그로닝겐으로 각각 96%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폴란드 그다인스크, 독일 라이프치히, 스웨덴 스톡홀름, 스위스 제네바가 각각 95%로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는 62%로 이번 설문 조사에서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팔레르모 외에도 나폴리와 로마까지 이탈리아 3개 도시가 하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그리스 아테네, 튀르키예 이스탄불, 알바니아 티라나,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도 60~70% 만족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집행위는“조사 대상 도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직전 보고서인 2019년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대부분 도시에서 평균 생활 만족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주연 기자

『4.3이 나에게 건넨 말』서평



제주 4·3 사건은 1947부터 1954년까지 7년여에 걸쳐 제주도에서 남로당과 토벌대의 무력 돌과 진압 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 역사의 비극 앞에 한 개인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7년을 넘는 기간 동안 3만의 선량한 민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자기 가족도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면...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하며, 그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저주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가해자들에게 보복하러 들지 않을까?

일반적인 독자라면, 『4·3이 나에게 건넨 말』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너무 어둡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 한상희는 이런 우려를 불식한다. 책의 제목처럼 4·3이 ‘건넨’ 말을 우리에게 ‘건넨다’.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로, 자신이 알게 된 역사적 진실을, 그 깊은

“이 책은 제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회한 속으로 밀어 넣는 또 다른 ‘4·3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세계 시민성’을 회복하고 실천해 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부터 1954년까지 7년여에 걸쳐 제주도에서 남로당과 토벌대의 무력 돌과 진압 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 역사의 비극 앞에 한 개인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7년을 넘는 기간 동안 3만의 선량한 민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자기 가족도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면...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하며, 그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저주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가해자들에게 보복하러 들지 않을까?

일반적인 독자라면, 『4·3이 나에게 건넨 말』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너무 어둡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 한상희는 이런 우려를 불식한다. 책의 제목처럼 4·3이 ‘건넨’ 말을 우리에게 ‘건넨다’.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로, 자신이 알게 된 역사적 진실을, 그 깊은

저지른 참혹한 이야기들을 통시적 관점에서 이야기체로 설득력 있게 서술해 간다.

그런데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가해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저자는 다시 다음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다.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아픔을 극복해 냈는지, 초토화된 마을에 홀로 남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제주공동체를 복원해 냈는지, 그 회복의 힘은 무엇일까? 독자들은 저자의 이 끈기 있고, 깊이 있는 정서에 감탄하게 된다.

여기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4·3의 가해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일까? 4·3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저자는 ‘악의 평범성’ 이론을 소개하며,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에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즉 누구든 악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4·3 때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한 인물들의 예를 통해 ‘선의 시민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곧 우리는 성찰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넘어 ‘선의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4·3은 평화 · 통일 ·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상징으로 기억되어야 하며, 평화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평화 통일은 우리가 이뤄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고 평화 · 인권의 길로 나가는 데 4·3은 살아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일깨운다. 그리고 사과와 용서, 화해의 ‘회복적 정의’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제시한 데서 4·3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황석영 2024년 국제 부커상 수상자 명단에



황석영 소설가(81)의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영어 번역본 『마터 2-10』)가 2024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에 올랐다. 심사위원회는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에 대해 "서구에서 보기 드문 한국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책으로 한 나라의 역사적 서사와 정의를 추구하는 개인의 여정을 엮었다"고 평가했다. 1차 후보에는 한국 외에도 알바니아,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등에서 집필된 작품이 포함됐다.

2020년 출간된 ‘철도원 삼대’는 구상부터 집필까지 30년이 걸린 황석영 작가의 대작이다. 작가는 철도 노동자 가족을 둘러싼 사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역사를 관통한다. 영어판은 김소라와 배영재가 번역했는데 이번 부커상 번역자 후보에 함께 올랐다.

한국 소설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천명관의 『고래』와 정보라의 『저주 토끼』는 2023년과 2022년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2016년에 수상한 바 있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은 2005년 맨부커 국제상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매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된 외국어 소설과 책에 수여되고 있다. 작가와 번역가에게도 각각 2만 5000파운드의 상금이 주어진다.

올 4월 9일에 6권의 책이 최종 후보로 발표되고, 이후 최종 수상작은 5월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홍채은 기자

2015년 10월5일 창간 (등록번호 세종 다00025)

발행인 겸 대표 신인호

편집국장 유철, 업무국장 김학영

논설위원 이종대, 민병준, 편집부장 김홍열

홈페이지 mondaytimes.net

편 집 실 mondaytimes@daum.net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지신산업센터 A 1003

구독/광고 문의 ☎ 1899-5146

GROW YOUR POTENTIAL.

FEEL AT HOME.

STUDY IN THE UK.

We offer a variety of study options, including:

Summer Schools

General English

CELTA

BA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BA English Language, Linguistics and TESOL

MA Language and Social Justice

MA TESOL

Professional Doctorate in Applied Linguistics

Est. 1841

YORK ST JOHN UNIVERSITY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학습혁명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이상오 지음 | 25,000원

김영순 · 배율규 외 옮김 | 20,000원

김영순 외 지음 | 20,000원

정가섭 외 옮김 | 15,000원

노래로 배우는 영어(개정판)

박은영 지음 | 13,500원

싱그래머

김지연 지음 | 15,000원

톡톡 스크린 잉글리쉬

신인호 외 지음 | 20,000원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손우정 · 김미란 옮김 | 6,500원

선학사 · 북코리아

Tel. 02-704-7840 Fax. 02-704-7848

특별기고

한겨울에 멀리, 높이 가는 사람들



네팔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어디선가 본 네팔(NEPAL)을 꼭 들어맞게 규정한 재미있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Never Ending Peace And Love!' 태양과 히말라야가 존재하는 한 이곳은 우리 히말라야오지탐사대의 활동무대입니다.



히말라야오지학교 탐사대
윤석주 고문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37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2년 정년퇴임 후에는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숲과 자연생태 안내자로 활동하며 충북지역 숲해설가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2006년부터는 히말라야오지학교탐사대 활동에 동참하여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네팔을 다녀왔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자연생태 교육과 상담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편집자주)

히말라야오지학교 탐사대(히오탐)는 말 그대로 네팔 히말라야 궁벽한 산속에 있는 작은 학교를 찾아 떠나는 도전적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학생들과 한때나마 함께 노래하며 춤추고, 뛰며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18년째 이 발길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헌신적인 이들이 모여 고운 뜻을 오로지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유력한 단체나 기관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자비량의 순례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8차 탐사대는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안나푸르나 (Annapurna) 산군 마차푸차레 (Machhapuchhare) 봉우리에 딸린 마르디히말(Mardi Himal)에서 새해의 꿈을 시작하려 합니다. 마르디히말의 뷰포인트는 해발 4,200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대장을 선두로, 가장 힘들어하는 대원의 걸음걸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닻새를 걸어올라 갔습니다. 13명 전 대원이 목표지점에 섰을 때, 정 부대장은 목이 메어 울먹이느라 제대로 인터뷰가 되지 않았습니다.

트레킹 중 우리가 묵는 마을의 지명도 재미있습니다. 오스트렐리아 캠프, 포레스트 캠프, 로우 캠프, 하이 캠프, 다시 로우 캠프, 시딩 (Sidhing).... 마치 군대 숙소처럼 모두 캠프(camp)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나푸르나 산군의 이 지역이 정글 지역으로 온통 나무숲으로 이어져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캠프 따라 이동하고 캠프에서 쉬게 되는데, 이 캠프에 있는 작은 롯지(lodge)들이 여행자의 숙소가 되는 것입니다.

트레킹하는 동안 우리는 히말라야의 장엄하고도 아득한 풍경과, 황량하면서도 쓸쓸한 모습을 동시에

보며 산을 오릅니다. 해발 7~8,000m의 머리에 흰눈을 쓰고 있는 설산이 동에서 서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파노라마는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사로잡아 말을 잊게 만듭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난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히말라야가 아름다운 건 모든 길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오르려는 길들은 숲속이나 골짜기 기슭을 따라 숨어 있어, 들어와 뚫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보이지 않는 길은 전문 산악인들의 몫입니다. 그 길은 악전고투, 자신의 발로 디딘 후에 그들의 이름을 남겨놓는 새 길(신 루트)이 될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줄기는 동서로 2,500km에 이르며 여기에는 8,000m 이상의 고산이 14개나 있습니다.

새벽 4시, 하이캠프에서 출발하여 어퍼 뷰 포인트에 이르니 일출, 히말라야의 붉은 햇살이 안나푸르나 동편부터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병풍처럼 둘러친 설산을 바라보는 마음은 무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장엄함, 숭고함, 비장함, 처연함... 겹쳐지는 온갖 상념과 거기에 성취감까지 벅차오릅니다.

히말라야의 경이로운 파노라마를 경험한 뒤, 이를 추스르는 시간이 바로 시딩 (Sidhing)에서의 솔로타임 (solo-time)입니다. 대원들 모두 서로가 보이지 않는 언덕이나 계곡, 굽어진 논이나 밭 어딘가에 혼자 앉아서 자기 생각에 잠기는 3시간의 활동입니다. 이때 참가자 모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발길과 형편을 생각하고, 다시 나아갈 방향과 태도를 설계하는 오롯한 자기만의 시간 보내기입니다.

다음 일정은 바라부리 (Baraburi) 학교 방문입니다. 히말라야오지학교탐사대와는 10년째 계속되는 인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여 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교였지만, 이제는 점점 줄어 겨우 15명 정도 남아 있는 가난한 오지학교로, 언제 폐교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공립학교입니다. 우리 탐사대가 도착해 보니 마을 주민과 학부모, 학생들 모두 모여 우리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인 우리의 이마에 행운의 붉은 점(티카 tika)을 찍어주고, 목에 꽃다발을 걸어주는 아이들과 포옹하며 감격해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식사 후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전 대원 바라부리 지역 학생들 집으로 홈스테이(home-stay)

하러 출발합니다. 나와 정수, 현성이는 어닐 폰(Anil Poon, 남, 11세)의 집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신나게 가는 아이들, 눈독, 발독 길을 어두운 데도 뿔 듯이 빠르게 걸어갑니다.

사립문 들어가 조그만 마당을 지나서 방문 앞에선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멈추어야 합니다. 흐린 전등불로 방안이 어두컴컴하기 때문입니다. 거실이라고 해야 반반한 흙바닥에, 가운데 화덕이 있고, 벽쪽으로 찬 그릇을 매달아 둔 주방입니다. 다른 한쪽으로 침대가 놓여 있으면 종류 이상의 살림살인데, 대부분은 멍석이 깔려있는 정도입니다. 대가족의 살림을 사는 집들은 이층으로 오르는 나무계단이 있고, 거기에 작은 침실이 이부자리 몇 가지와 함께 있을 뿐입니다.

어닐의 집에 아빠,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는 인도로 돈벌러 가고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닐은 할아버지(54세) 할머니(45세)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어닐의 작은아빠(22세), 작은엄마(17세)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학용품과 과자를 선물로 내어놓으니, 가난한 주인은 먼 데서 온 손님을 위해 마실 것과 간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시골집 모습 그대로인 어닐네 집, 엄마 아빠도 보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나는 어닐 폰의 앞날에 그들 신의 가호가 가득하길, 그리고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길 빌며 잠을 청했습니다.

오전 학교행사는 친환경 양치질하기, 그림 그리기, 장명루(끈으로 만든 팔찌 일종) 만들기로 이어졌고, 노래와 춤 공연으로 흥을 돋우었습니다. 급수시설과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사업비, 바라부리 학생들 모두에게 우리가 준비한 의류와 학용품을 선물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네팔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높은 설산만 생각하여 아주 추운 나라,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산만 있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도상으로 볼 때 제주도보다 훨씬 아래인 북위 27도(제주도는 북위 33도)로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아열대 기후입니다. 어디선가 본 네팔(NEPAL)을 꼭 들어맞게 규정한 재미있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Never Ending Peace And Love!'

태양과 히말라야가 존재하는 한, 이곳은 우리 히말라야오지탐사대의 활동무대입니다.

윤석주 (히말라야오지학교 탐사대 고문)